

## 의정소식



### 고양시의회, 코로나19 차단 방역활동 나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증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항동 웨스턴돔을 찾아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이윤승 의장을 비롯해 이규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마스크와 작업복을 갖춰 입고 웨스턴돔의 출입구, 비상계단, 사무실, 승강기 등에 직접 소독제를 살포하며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는 등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윤승 의장은 “고양시의회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증 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대국민 행동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한 뒤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작업을 마치고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시장 내 위치한 식당을 방문해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다.

### 고양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하루 일정의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고양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당초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인 임시회를 1일의 의사일정으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했으며 공무원들이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장 및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만 참석했다.

또한 임시회 개최에 앞서 의회 청사에 소독을 실시하고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이날 고양시의회는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2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향후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건들만 처리했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간다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